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회순 박순철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최종 승인

광양읍·광영동 등 9개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탄력

광양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최근 전남도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광양읍과 광영동 등 9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와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시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그동안 시는 인구와 산업체수 감

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비전 설정과 도시재생의 시급성·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재생전략을 수립해 왔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지역여건과 목적에 따라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와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근린재생형'과 공단, 철도, 산업단지 등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경계반형'으로 구분된다.

시가 선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

역은 '근린재생형'으로 광양읍,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일원, '근린재생형'과 '도시경계반형'으로 태인동 일원 등 총 9개 지역 약 11.34km²이다.

이어, 수립한 도시계획 전략계획(안)을 토대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전문가와 주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주민 공청회를 토대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를 거쳐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재생 전략을 계획에 담았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는 도시재생의 목표와 범위, 목표달성 방안, 활성화지역 지정, 재원조달방안 등 장기적인 방안들이 담겨있다.

정은태 건설과장은 "이번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받은 9개 지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과거 상권의 중심지였던 광영동지역에는 중심시가 지형으로, 광양국가산단 인근 태인동 용지마을에는 주거지 지원형으로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광양시 '플럼코트' 新 소득작목 육성 박차

평가회 가져...단맛과 신맛의 조화에 기능성까지 갖춰

광양시가 플럼코트 품종 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플럼코트 품종 평가회를 개최했다.

'플럼코트'는 자두의 '플럼(Plum)'과 살구의 '에프리카트(Apricot)'의 영문 글자를 따서 지은 새로운 과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2007년 '하모니' 품종을 시작으로 티파니, 심포니, 사이너 등 총 4개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자두의 신맛과 살구의 달콤함 두 가지 맛을 가진 '플럼코트'는 맛뿐만 아니라 기능성이 좋은 과일로 안토키닌이 풍부해 시력개선과 체중감량 등에 도움이 된다.

특히, 황산화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신화여제 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플럼코트 재배 시 Y자 덕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배 방법은 매실과 대체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플럼코트는 광양에는 널리 보급되지 않은 상태로 나주, 순천, 완주 등에서 100여 ha가 재배되고 있으며, 그동안 시는 2013년도 별도의 실증시험포에 '플럼코트' 시험재배를 추진해 왔었다.

이날 평가회는 참석자들에게 플럼코트 재배기술과 각 품종들을 설명하고, 시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평가회를 토대로 오는 2019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매실 대체작목으로 플럼코트를 육성하고자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중수 미래농업팀장은 "광양의 풍부한 일조량과 매실 재배기술로 숙련된 농업인들이 많이 있어 플럼코트 재배 시범사업에 매실 대체작목을 육성한다면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플럼코트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연구와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평가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수확 후 토양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작물 재배에 반영토록 하는 등, 이삭거름 주는 요령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질소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벼가 쓰러지고, 각종 병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며 미질을 저하시켜 밥맛이 떨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벼 엽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료량을 조절하여 주는 것이 좋다. 또한 벼 재배농가의 엽분석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회순=박순철 기자

화순군, 태풍 이기는 벼 엽분석 실시

질소함량 측정으로 벼의 영양상태 진단



화순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과 벼 쓰러짐 방지를 위해 농업인의

쌀 소득 보전을 위해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과 연계해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벼 엽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벼 엽분석은 질소질 비료 과다사용 농가 지속관리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토양환경 보전

관심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벼 엽 분석은 엽색이 짙은 필지와 전년도 비료를 많이 준 농가를 포함하여 30개소를 대상으로 중·만생종 기준 출수 30일에서 40일 전에 엽의 질소 함량을 측정한다. 엽분석은 벼의 영양 상태를 진단하여 이삭거름 주는 양을 조절하는데 활용된다.

엽분석 결과 질소 함량이 2.51~3.19%이면 적정 수치로 이때 비료 주는 양은 2.0kg/10a을 2.50% 이하는 표준비량의 30%를 증량해야 한다. 질소 함량이 3.51% 이상일 경우 해당 농가에 통보하여 반드시

추가비료를 주지 않도록 하고 수확 후 토양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작물 재배에 반영토록 하는 등, 이삭거름 주는 요령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질소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벼가 쓰러지고, 각종 병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며 미질을 저하시켜 밥맛이 떨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벼 엽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료량을 조절하여 주는 것이 좋다. 또한 벼 재배농가의 엽분석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회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도심의 빈 공터, 주차장으로 조성 큰 호응

주차편의 · 경관개선 · 소유자 재산세 면제로 일석삼조 효과



순천시는 도심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 위해 빈 공터나 자투리

땅을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심지역 주택가나 삼가지역 생활도로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인해 보행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되어, 도심 주차장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높은 부지매입 비용으로 인해 주차장 설치에 한계가

빈 공터나 자투리 땅 등을 찾아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아 공유주차장을 조성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주민자율 공유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은 올해 상반기에 신대지구 등 총 28개소에 512면을 조성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원도심 등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 5개소에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면당 최소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공유주차장은 임시주차장이기는 하지만 1면당 40여만원이면 조성 가능하다.

순천시에 현재까지 512면을 조성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2억원 정도이지만,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였다면 약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규모로 비용절감 부분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공유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지가 대부분 관리가 되지 않는 도심내 빈 공터로써 경작을 하거나 생활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으나 깨끗한 주변 환경정비로 인근주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밖에도 시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최근 주차장 설치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공유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교통과 황태주 과장은 "건축계획이 없는 도심내 빈 공터를 공유주차장으로 제공하거나, 담장이나 대문을 열어 내집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으니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공유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제3회 순천철도마을축제 개최

순천철도어린이동요제 병행

순천시 조곡동에서는 7일 조곡동 철도관사마을(구, 철도운동장 주변) 일원에서 제3회 순천철도마을축제 및 제1회 순천철도어린이동요제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회를 맞는 순천철도마을축제는 마을이 갖는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철도관사 가치를 공유하고 독특한 자원을 특화하여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축제로, 올해는 철도어린이동요제, 동네한바퀴 및 보물찾기, 철도문화체험, 철도인 이약실선생 관사

개방(일본식 다다미방), 한일문화체험, 대형물놀이(에어바운스) 체험 등 15여종의 다양한 체험거리와 지역민들의 재능기부 공연, 순천아고라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1회 순천철도어린이동요제'는 사라져 가는 우리 동요를 알리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의 도시, 순천에 걸맞는 행사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

장성군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